

“전 세계에서 함께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GCN 방송을 통해 전 세계 만민 성도가 함께하고 있다. 특별 기도회 소식과 프랑스 퐁리주 성도의 간증.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고, 영적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열기와 분냄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사람을 흠으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께서서는 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에 담긴 영적 의미를 살펴본다.

“딸을 치료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권능을 체험한 뒤 봉사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예능 위원회 소속 ‘헤어 메이크업 봉사팀’ 강희영 집사의 간증.

만민뉴스

제555호 2012년 10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급속한 영의 흐름 속에 특별 기도회 열려

주제: 축복은 나의 것! 일사: 10월 22일~12월 2일, 오후 9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삼상 12:23)고 고백한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매일 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찬양과 기도의 향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2012년 하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열려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의 뜨거운 동행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10월 22일 분당,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성도들과 GCN 방송을 통해 함께하는 인도 천나만민교회 성도들(우측 가운데 사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분반아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기 원하는 복된 성도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42일 동안 '축복은 나의 것!'이라는 주제 아래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첫날인 10월 22일, 성전 곳곳에는 이른 시간부터 성도들로 붐볐다. 이날 산상 기도 중인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전화 연결을 통해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아 더욱 주님 마음을 닦아갈 것과 영육 간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기도회는 GCN 방송(www.gcntv.org)과 인터넷(www.manmin.org)을 통해 우리 교회 본당과 2성전뿐 아니라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다니엘 로젠 목사는 "텔아비브 리빙스톤교회 성도들과 크리스털포럼의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태국 나라론 사웁차이 자매는 "GCN 방송으로 만민중앙교회 성도들과 함께 올리는 불같은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민 찬양은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가와구치 아스히로 집사는 "매일 마음을 담아 드리는 감사예물과 작정공식, 그리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것입니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교회 창립 30주년,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뻗어가는 시점에서 열린 이번 특별 기도회는 교회적인 축복과 더불어 가나안성전 시대를 앞두고 준비된 일꾼으로 서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업고 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로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 40분까지, 주말은 11시, 금요일은 금요일예배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많은 성도가 참석해 기도 응답과 마음의 활력을 이루며 영혼이 잠들면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가고 있다.

“시공 초월한 기도로 고혈압과 비만을 치료받았습니다”

퐁리주 성도 (프랑스 파리)



저는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2011년부터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는 7시간 정도 시차가 납니다. 주일이면 새벽 3시 30분경에 일어나 만민중앙교회 대예배와 저녁예배를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지요. 금요일에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에 하는 금요일예배를 드리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하는 다니엘철야 기도회도 매일 참석하고 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 믿음의 분량, 천국 설교를 들으며 예전에 교회를 다녀도 풀리지 않던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해소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임했지요. 많게는 하루에 3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성장과 더 좋은 천국을 가기 위한 목표를 뚜렷하게 세웠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권능도 체험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했습니다. 당회장님 설교 말씀을 8개월 동안 듣고 나니,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주어져 하루 공식을 하고 혈압 약을 끊었지요. 그 후 당회장님의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치료됐고, 체중도 80kg에서 56kg으로 감량했습니다.

요즘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만민뉴스'를 통해 성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기 위해 방황하던 제게 만민중앙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흙의 속성과 같은 사람의 마음 발음 개간해 알곡 성도를 천국에 들이려는 인간 경작의 섭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간 경작이란 무엇일까?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린 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정성을 다해 가꾼다. 열매가 영글어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쭉정이는 불에 사른다. 이런 자연 원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돼 사람을 경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셨다. 그러나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인간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때가 이르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농부가 정성을 다해 곡식을 재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한량없는 사랑을 인생들에게 베풀고 계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다. 그 선택은 순전히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씨를 깨우려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바를 행할 때에 성령으로 영을 놓아감으로 알곡 성도가 될 수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씨가 있지만 깨어나지 못한다. 바로 쭉정이에 해당하며, 결국 이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성령을 받아 생명의 씨가 깨어난 성도들은 영이 성장하는 만큼 그에 맞는 천국 처소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 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듯이 생명의 씨가 심겨진 마음 밭도 좋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흙의 속성과 같은 사람의 마음 밭

하나님께서서는 범죄한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보내시면서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창 3:23).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간다는 것은 근본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마음을 개간한다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다. 곧 마음 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비진리를 버리고 악성, 죄성을 뽑아내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개간해 좋은 밭이 될수록 영이 잘 성장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옛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셨다. 그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며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다(창 1:27~28).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과정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본다.

흙은 무엇을 첨가하느냐에 따라 그 성질이 달라진다. 척박한 땅이라도 좋은 성분의 흙과 거름을 섞어 주고 부지런히 갈아엎어 주면 좋은 땅이 된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 밭도 어떤 것을 받아들여 입력하느냐에 따라 그 속성이 달라진다. 선한 것을 입력하면 선한 마음이 되지만 악한 것을 입력하면 악한 마음이 된다.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서 악한 마음 또는 선한 마음이 될 수 있다. 태어날 때는 선이 많은 마음이었다 해도 자라면서 계속 악을 입력해 나가면 악한 마음 밭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태어날 때는 악이 많은 마음이었다 해도 자라면서 선한 것을 보고 듣고 입력시키면 선한 마음 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 마음의 근본 속성은 흙의 속성과 닮았다. 이렇게 속성이 비슷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야 인간 경작이 공의 가운데 이뤄질 수 있음을 아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금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사람 마음이 처음 만드신 그 마음에서 변질되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라면 그것은 공의에 맞지 않다. 원수 마귀 사단이 하나님께 송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 사랑을 깨우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참이요, 진실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정복할 뿐 아니라 땅의 모든 것과 영계의 어둠의 세력까지 지배하고 다스리기 원하셨다

흙에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신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다(창 1:28). 여기서 땅은 '땅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라는 영적 의미도 담겨 있다.

그런데 땅은 영적으로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에 속한 모든 것뿐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까지 정복하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어진 아담이 땅의 모든 것과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11 November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Programming Guide

- 이계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1차 영혼육 7-8
 - 2차 영혼육 1-3
 - 참으로 의로운 마음(1면)
 - 창세기 강해 29-33
 - 천국 16-20
- GCN TV설교
 - 이수진 목사의 '육과영 10-13'
 - 장구영 목사의 GCN TV특강 '실자가의 도 7-11'
 - 신동초 목사의 '성령의 역사2'
 - 이미경 목사의 '자기에게 속지말라'
- 찬양 프로그램
 - GCN퍼펙트프라이즈2 6-11
 - 해의성회 시리즈
 - 오두라스 연합대성회 1-1, 1-2
 - 에스토니아대성회 중환편
- GCN 특선명화
 - 퀘바디스 1,2부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GCN

“아름다운 헤어스타일로 연출하며 날마다 천국 소망 넘쳐요”

강희영 집사 (1-3여선교회)



지난 10월 초,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 예능위원회 주최로 축하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저는 헤어스타일링을 담당했지요.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질 때마다 찬사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연신 감사의 고백이 흘러 나왔습니다.

3년 전, 예능위원회 소속 ‘헤어 메이크업 봉사팀’이 발족된 뒤부터 저는 매주 특송 팀이나 찬양 인도자, 그 외에도 교회 행사 때마다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후 위장병을 치료받고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도 전혀 마음에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직장동료 김형선 집사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그제야 제 신앙이 초신자와 다름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헤어디자이너라는 직업 특성상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해 위염에 시달렸고 종종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에는 이런 증상들이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기 때문입니다.

한번은 미용실 문에 발뚧뚧지를 다쳤는데 별로 다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통증이 가시

지 않더니 결국 상처가 닳으면서 뒤꿈치 뼈가 보일 정도였지요.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렸더니 “왜 이제야 왔어요?” 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시고 뒤꿈치가 원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딸에게 찾아온 불청객, ‘전염성 농가진’

결혼 3년 만에 첫째 딸을 낳았는데 생후 15개월째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는 바이러스가 틈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팔 다리에 물집이 생겼지요. 어떤 상태인지 알고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은 환부에 손도 대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어려 약물 치료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가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연고만 처방해 주었지요. 딸 예지는 전염성 농가진이었습니다.

무심한 의사선생님의 태도에 ‘자기 자녀라도 그럴까?’ 하는 아삭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료받고자 당회장님께 나아갔습니다. 당회장님께서서는 피고름으로 뒤덮인 예지의 다리에 손을 얹고 정성 다해 기도해 주셨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기도받은 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주에는 다리에 두꺼운 딱지가 앉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에는 고열이 나면서 기저귀 차는 부위에 계란만한 크기로 임파선이 부어올랐지요. 셋째 주에는 큰 딱지들이 떨어지더니 다시 살짝 얇은 딱지가 입혀졌고 며칠 후에는 그 딱지마저 떨어져 내렸습니다. 임파선도 자연스럽게 터져버렸지요. 고개를 돌릴 만큼 흥했던 예지의 다리가 불과 3주 만에 깨끗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 예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배려할 줄 알고 협동심이 많은 아이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저는 보답하고픈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을 운영하며 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생활도 게을리했지요.

그러던 중,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고, 셋째 아이 출산과 함께 운영

하던 미용실을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봉사할 일을 찾았지요. 여선교회 봉사, 기관장, 선교회 임원, 조장 사명을 감당하며 영혼 사랑의 마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봉사팀장 오미옥 집사님으로부터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뭘 뜻이 기뻐고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지요. 미용실에서 커트와 파마를 하던 것과 달리 예능 팀에 맞는 헤어스타일 연출은 새로운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떨리기도 했지만 저는 한계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한 실력 향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당회장님을 생각하니 자신감도 붙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나누는 기쁨

이렇게 마음 다해 봉사하니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더욱 화목해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느덧 봉사를 시작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봉사팀은 군대에서 비상시 출동을 위해 만든 5분 대기조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쁨으로 봉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느껴져 감사가 넘칩니다. 이제는 충성 봉사와 함께 영의 마음, 참마음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것만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창립 30주년 축하공연 출연진 총 250여 명의 헤어스타일링을 봉사팀과 함께 담당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 세계적인 교회에 발탁될 영광 간에 실력을 갖추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의 목표도 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던 제게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명명된 목표가 생겼고, 하나님 나라에 쓰이는 일꾼이 됐으니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축복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당회장 이재복 목사의 기도를 받고 전염성 농가진을 치료받은 첫째 딸 예지 (당시 3세)



예지, 예정, 예림 세 딸과 함께한 김형선, 강희영 집사 부부

국내 지교회, 자선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재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민중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중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919-4, 010-9818-9833
- 서부산교회 부산 구포동 1091번지 북성8로7길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민중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71 104-9 ☎0533566-4717, 010-4575-1934
- 새해구민중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5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민중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20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중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길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평민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재동181 온천로5길 25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민중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1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중교회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중교회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중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82-9981, 010-3278-7712
- 연천민중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중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677-7077, 010-3447-7077
- 공주민중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중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중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민중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1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중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77
- 세양민중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량동 96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민중교회 충북 충주시 만수동 700번지 두산가1 201호 ☎0431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중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8-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민중교회 경남 말양시 내리동 1524-14 ☎055353-9192, 010-9392-2073
- 진주민중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리동 301-5 ☎0553852-5815, 010-9196-3927
- 강해민중교회 경남 김해시 부림동 626-18 ☎055322-7055, 010-6605-2054
- 창원민중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1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중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1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중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2층) ☎0549287-8882, 010-3900-2048
- 경주민중교회 경북 경주시 돌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중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1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중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정동 909-10층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여수민중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목포민중교회 전남 목포시 연해동 765-2번지 ☎061652-8311, 010-3717-2073
- 목포민중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중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청량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7723
- 순천민중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중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차 271 929-1 ☎0631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중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1853-0675, 010-637-0263
- 군산민중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중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면 학곡리 2-1순화대로 637 ☎0331261-4217, 010-2759-7077
- 원주민중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중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1637-0271, 010-7733-1327
- 원주민중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1641-3790, 010-6334-7750
- 제주시민중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서울시민중교회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1995-9951, 011-1717-1217
- 안산시민중교회 경기도 안산시 철북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시제민 인천시 중구 주안 5동 23-41 ☎0321863-9857, 011-287-7369
- 경남시제민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1569-3835, 010-7720-7770
- 분당시제민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시제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452-3 ☎0319105-2419, 019-276-1014
- 구리시제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시제민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시제민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1528-3630, 010-7720-7770
- 수원시제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시제민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시제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